



# 국내·외 축산소식



## 2007 축산물 브랜드전 이모저모

지난해에 비해 전시 형태가 세련돼졌고 참여 브랜드의 마케팅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 상당수 참관객과 참여업체 관계자들은 “예년에 비해 브랜드 수는 줄어든 느낌이나 전시는 깔끔해진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

### ◆ 요리를 넘어 예술의 경지로 간 고기 요리 등장

직장인과 학생을 비롯해 전문조리사까지 10대부터 5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요리솜씨경연대회.

참가연령이 젊어지고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기요리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첨가돼 심사위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는 후문.

이름도 가지각색, 대상을 받은 ‘과일소스를 곁들인 세가지 한우 안주’를 비롯해 돼지고기 뒷다리로 만든 곱창까지 등장. 오렌지에 제운 닭고기로 만든 닭고기 젤리가 등장하는 등 창의적인 요리 돋보여.

선호부위인 삼겹살, 로스 부위 등을 제외한 비선

호 부위로만 만든 요리들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

### ◆ 행사장내 구매 열풍.

추석 선물세트를 비롯해 브랜드 축산물의 상품 할인 판매에 일반 소비자들 발길 이어져.

행사전부터 화식용 고기를 구입하려는 회사에서부터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주부까지 문의 쇄도.

각 부스마다 설치된 쇼케이스에 눈길 떴지 못하는 소비자들 늘어나 믿고 살 수 있는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인기 반영.

### ◆ 코를 잡아 끄는 ‘노릇 노릇 고기 냄새’

행사의 백미는 역시 시식행사. 이번 행사에서 시식행사 먹거리가 더욱 다양해 졌다는 평.

한국인의 고정불변 인기메뉴 삼겹살에서부터 돈까스, 소세지를 비롯해 허한 속을 달래는 곰탕까지 등장. 평소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한우 고기 시식은 역시 인기 만발.

한 참관객은 “한우고기를 시식해보고 맛에 놀랐다”며 “이 정도 맛이면 다소 높은 가격이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감탄.

길게 늘어선 줄에도 불평 없이 노릇 노릇 굽히는 고기 냄새에 즐거워하는 참관객들 발길 이어져.



◆ 농협사료 우수성 또 입증

2007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가 지난 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25개 경영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한우부문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등 5개 부문 중 4개상을 수상한 브랜드 경영체가 모두 농협사료를 전량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농협사료의 우수성이 또 다시 입증됐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황성한우, 농림부 장관상 지리산 순한한우·홍천 늘푸름한우, 농협중앙회장상의 남해한우와 돼지부문의 도드람 포크가 모두 농협사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 참여우 첫 참가에서 소비자 호평

공동브랜드 후발주자로서 처음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한 전북 광역브랜드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육질과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관심을 모았다.

브랜드 사업단을 주도하고 있는 농협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우 가치와 참맛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1등급 이상 참여우를 서울을 비롯 대도시 백화점과 유명한우소비처인 대형음식점을 집중 공략하여 참여우의 우수성을 발판으로 전북축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리산 순한 한우 2년 연속 최우수상

우수 축산물 가운데 최고를 가리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도내 동부권 7개축협이 연합해 만든 ‘지리산 순한한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명품 축산물로서 우수성을 재인정 받았다.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될 지리산순한한우는 농림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1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 황성한우 2005년 이어 또 다시 대상

이번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에서 한우 부문 대상을 받은 황성한우 홍보관에는 소비자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명재 황성축협 조합장은 소비자과 바이어들로부터 쏟아지는 질문공세에 대해 황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느라 진땀을 흘리면서도 연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고 조합장은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대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황성한우가 전국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수종축 확보와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폐사 예방, 생산체계 개선 절실

돼지 폐사를 줄이기 위해 생산 시스템의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박봉균 서울대학교수는 방역위생 ‘돼지 소모성질환 농가 대응방안’이란 글을 통해 돼지 폐사의 주범인 4P관련 질병이 생산시스템에서 유래되는 질병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생산시스템 가운데 돼지의 흐름이 가

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모돈군의 질병 안전성을 위한 후보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생산체계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양돈장들의 분업형 클러스터 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이유자돈에서 출하돈에 이르는 구간까지 올인-올아웃 운영체계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돈타임스]



### 농협의 두얼굴

농협무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농축산단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김우남 국회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농협무역이 지난 5월말 타이슨사와 미국 쇠고기 669톤을 35만8700달러에 수입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물량 중 309톤에 대해선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협무역이 구매한 미국산 쇠고기 품목은 목심, 진갈비살, 갈비본살, 양지 등이다.

또한 농협무역은 최근 3년간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활발히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만7848톤 물량을 1115억7100만원에 구입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액의 42.7%나 차지한다.

이같은 농협무역의 행태에 농축산단체들은 농협무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도 4일 성명서에서 “농협이 한편으로는 신토불이를 외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이익을 챙기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수입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축협노동조합도 3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농협무역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취득한 수익금 전액을 농민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농어민신문]



### 사료값은 ‘또’ 들썩

10일경 6% 정도, 국제곡물값 인상  
이유... 올들어 세번째

사료값이 또 오른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 올해만 세 번째 인상이다.

하지만 사료업체들은 내년 1월 추가 인상도 계획해 농가들의 경영 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료업체에 따르면 최근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의 상승, 환율 변화 등의 이유로 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사료협회가 밝힌 지난해 5월 사료가격 인상 이후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 추이를 살펴보면 8월 평균 옥수수 가격은 약 241달러(CBOT기준, 추정치)로 5월 235달러보다 약 2.6% 인상됐다.

하지만 5월 311달러였던 대두박 가격은 8월 평균 351달러(추정치)로 약 12.8% 올랐고 매달 상승



세를 보였던 해상운임비도 5월 약 74달러(걸프기준)에서 8월 21.6% 오른 90달러선까지 육박했다.

환율도 948달러(8월 31일 기준)로 불과 한 달 전인 7월 31일보다 약 18달러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A기업의 대표는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10일이 마지노선으로 인상폭은 약 6%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B기업의 모 부장도 “10일 이후 사료가격을 약 6% 정도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제곡물가격 등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1월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 10월 19~20일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 충북 괴산에서 3개분과 한자리에 화합의 장 마련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오는 10월 19일~20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양계인대회를 충북 괴산 화양계곡 화양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3개 분과(육계·채란·종계)가 다함께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질 예정으로 전국양계인 및 관련인 등 약 2,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전국양계인대회는 21세기 양계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회중심의 일체감 조성으로 양계인의 자존심 양양과 재충전을 도모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양계산업 동향에 새로운 패러다임

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강연자로는 한국벤처농업대학 전준일 교수와 솔로몬기업전략연구소 김동신 소장이 초청되어 ‘경쟁력있는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변화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양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양계산물의 안정공급 확보를 마련하고 농장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양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라이브뉴스]



## 세계 곡물 재고율 '07년 말 사상 최저 전망

'07년 말 세계 곡물 재고율이 15.2%에 불과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미국 농무성이 발표하였다. 이러한 재고율 감소는 에탄올 수요의 증대에 따른 옥수수 수요 증가와 보리나 쌀의 재고량 축소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농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07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3억3천160만 톤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되고, 세계적인 옥수수 생산량도 7억7천150만톤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어, 금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억 9천 100만톤으로 5%가 증가한 사상 최대 물량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소비량도 전년대비 3%가 증가한 21억톤으로 전체 소비량에 대한 기말 재고율이 금년말 15.2%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 '72년~'73년의 15.4% 수준을 밑돌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편 미국내 옥수 재배 면적은 전년비 19%가 증가한 9천290만ha이지만 대두 재배면적은 15%가 감소한 6천410만ha로 집계되어 생산량은 18% 줄어든 7천140만톤으로 전망되었다.

[미국 농무성 자료 8월호]



### 돼지 폐사 홍막페렴 · 글래서거 주 원인

돼지의 폐사 주요인이 PRRS를 바탕으로 한 홍막페렴과 글래서병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양돈협회 방역대책위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방역관련 사업과 질병실태조사 1차 혈청검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 사업 참여 농가 300개 중 100곳을 선정(96농가 채혈) 시행했고, 대상 질병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PRRS), 유행성설사병(PED), 썬코바이러스(PCV-2), 위축성비염(AR), 파스튜렐라 페렴 A형과 D형, 홍막페렴 혈청형 2와 5, 글래서병과 유행성페렴 등 10가지 질병에 대해 실시됐다.

방역위는 질병 위험등급을 5단계(0, 1, 2, 3, 4 ;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 등급 높음)로 나눴다. 위축성비염의 경우 3이상인 농가가 96농가 중 47농가(49%), 파스튜렐라 A형이 65농가(67.7%), 파스 D형이 75농가(78.1%), 홍막페렴 2형이 84농가(87.5%), 5형이 86농가(89.5%), 글래서병 82농가(85.4%), 썬코 23농가(23.9%), PRRS 91농가(94.8%), 마이코플라스마 50농가(52%), PED 57농가(59%) 등으로 나타났다.

방역위는 이를 기준으로 농장의 질병 상황의 경우 PRRS와 홍막페렴, 글래서병 등이 위험등급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질병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방역위는 또 설사병은 전 농장에 상재해 있고 썬코바이러스는 컨트롤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PRRS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홍막 페렴, 글래서병 등 세균성 호흡기질병에 대해 예방 치료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및 항생제 사용의 효능 발휘성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위는 향후 계획에 대해 100농가 가운데 PRRS 바이러스와 PED 바이러스의 분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돈타임스]



### 가축분뇨 해법없나 (상) 늘어나는 분뇨... 막막한 농심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릴 곳도 마땅치 않고, 재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가축분뇨 발생·처리 실태와 자연순환농업의 현황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경기 이천시에서 어미돼지(모돈) 500여마리로부터 새끼돼지를 생산하는 정종극씨. 그는 요즘 하루에



15t씩 쏟아져 나오는 돼지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장에 있는 하루 7t 용량의 자체 처리시설을 확충하려 해도 약취 민원이 우려되고,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처리를 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현재 전문업체를 통해 돼지 분뇨를 버리는데도 매월 300만~400만원이 드는데, 업체는 계속 비용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가축분뇨가 우리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 **쌀 생산량보다 10배 많은 가축분뇨**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5년 4,184만에서 지난해는 4,391만으로 늘었다. 올해는 가축 사육 마릿수가 늘어 4,5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468만)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가축분뇨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지만 대부분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되고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의 ‘2006년 가축분뇨 처리실태’에도 전체 발생량 가운데 80.6%가 퇴·액비로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분뇨를 퇴·액비로 만들어도 수요자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 상당량은 다시 불법 매립 또는 바다에 투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버릴 곳도 없다**

축산농가들은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들은 해양투기마저 금

지될 경우 분뇨처리를 못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돼지 분뇨는 악취가 심해 퇴·액비로 만들기도 어렵고, 잘 만들어진 퇴·액비도 경종농가가 사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수 양돈 농가들은 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기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해 바다에 버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자원화를 촉진시키는 등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면 대다수 양돈농가는 돼지 사육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원화가 해법**

전문가들은 가축 분뇨는 곧 자원이라는 인식부터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가축분뇨를 악취가 나지 않도록 완전 발효시켜 가스를 생산, 자동차 등의 연료로 활용하고 있고 남은 찌꺼기는 비료나 토양개량제·양어장 사료로 쓰는 등 소중한 자원으로 ‘리사이클링(순환)’ 하는 기술이 실용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이 자연순환농업 쪽에 집중돼 있을 뿐 선진국과 같은 ‘리사이클링’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현재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농림부 등 일부 부처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선진국들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화 연구를 펼치는 등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